성인간호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1년 4월
Korean J Adult Nurs Vol. 23, No. 2, 123-134, April, 2011

자살을 시도한 젊은 여성들의 삶의 경험에 관한 페미니스트 현상학

이명선[1] · 황순찬[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1], 송파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사[2]

Feminist Phenomenology on the Life Experiences of Young Korean Women with Attempted Suicide

Yi, Myungsun[1] · Hwang, Soon Chan[2]

[1]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Social Worker, Songpa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of young Korean women with attempted suicide.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terviews from four women who attempted suicide during 2008-2009. A total of 25 hours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eminist phenomenology to reflect and respect the participants' view and experience as much as possible. **Results:** Five theme clusters and ten themes emerged from the analysis. Five theme clusters include "anger resulting from others-oriented life," "guilt resulting from selfish life," "confusion resulting from unbalanced life between self and others," "attempted suicide resulting from the chaos of life as a whole," and "peace resulting from balanced life between self and others." While these theme clusters represent the phases of life experience, ten themes indicate specific problems or strategies raised during these phases in the context of male-oriented Korean patriarchal societ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insights by deeply understanding of life of young women who attempted suicide in the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with the ideology of the subjection of women.

Key Words: Attempted suicide, Life experiences, Women, Qualitative research, Feminism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살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2008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26.0명으로 12,858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Statistics Korea, 2009).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약 35명이 자살로 사망하며,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1위라는 불명예를 나타낸다(Statistics Korea, 2009). 자살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자살률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2008년 자살 사망자는 전년 대비 684명 늘어 5.0%의 증가를 보였다. 2000년에는 자살이 한국인 전체의 사망 원인 가운데 8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08년에는

주요어: 자살시도, 삶의 경험, 여성, 질적 연구, 페미니즘

Address reprint requests to: Yi, Myungsun, 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ongon-dong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829, Fax: 82-2-740-8837, E-mail: donam@snu.ac.kr

투고일 2010년 12월 31일 / 수정일 2011년 4월 4일 /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8일

암,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1위로 나타나(Statistics Korea, 2009)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듯 자살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인 요인들로 구분한 조사연구들이 있다(Kim, 2002; Kim & Choi, 2008; Kim, Kim, Ju, & Lee, 2009; Lee & Lee, 2002; Park, 2008). 또한 생애주기별로 청소년(Im & Jung, 2002; Kim, 2002; Lee & Lee, 2002; Park, 2008), 청년(Kim et al., 2008) 혹은 노인(Kim, 2009; Kim & Choi, 2008) 등으로 구분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확인된 자살 위험 요인으로는 우울 등의 정신병리, 중독성 장애, 이전의 자살 시도, 자살의 가족력과 부모의 현재 또는 과거의 정신병리, 발달적 외상, 신체적 질병,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으로 밝혀졌다. Kim과 Lee (2009)의 메타분석에서도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심리적 변인군이 자살 생각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고, 사회문화적 그리고 가정환경적 변인군의 순으로 나타나,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 이외에도 자살 예방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모델 및 이론 검정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었으며(Lee, 2007; Park, 2007) 자살 예방을 위한 중재 연구도 청소년(Park, 2009)이나 노인요양소에 거주하는 노인(Jo & Kim, 2008b)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 진행되었다.

하지만 자살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자살 행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 대부분의 연구대상이 자살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자살 생각을 기점으로 하여 자살 계획, 자살 시도, 그리고 자살이라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여겨지지만(Beck, Kovacs, & Weissman, 1979; Calson & Cantwell, 1982), 최근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Maris, Berman, & Silverman, 2000). 따라서 자살을 생각해 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자살 예방과 조기 발견에 폭넓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둘째,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연구자가 선택한 변수 중심의 양적 연구에 치중되어 자살 생각이나 시도 등 자살 관련 행동자들의 견해와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연구자 관점의 결과를 가지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보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이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내적인 경험에 초점을 둔 질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Michel et al., 2002).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의 제한점은 대부분의 연구가 남녀를 통틀어 연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녀의 특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 자살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외감이 남자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 청소년에게는 우울을 매개 삼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남녀 간의 차이를 보인다(Lee, 2007). 자살에 이르게 되는 타당한 동기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넓고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McAndrew & Garrison, 2007).

한편 자살률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고(Statistics Korea, 2009), 따라서 여성의 자살은 남성보다 사회적 관심을 덜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여성의 자살률은 남성보다 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Statistics Korea, 2009), 자살 시도율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에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2; Kim et al., 2009; Park, 2009).

이렇듯 여성 자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남녀 간의 자살 행동의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자살 행동을 심리적, 사회적 차원 등 여러 복합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귀납적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더 나아가 여성들의 자살 시도 경험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성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접근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페미니스트 접근은 하나의 관점으로서 여성의 경험을 지식의 합법적인 원천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경험에 타당성을 부여한다(Campbell & Bunting, 1991; Reinharz, 1992; Yi & Yih, 2004). 그러므로 여성을 제약하는 우리나라의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와 맥락 속에서 자살을 시도한 젊은 여성들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지를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자살 시도 여성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귀납적으로 밝히는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현상학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젊은 여성들의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살 시도 여성들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들의 삶과 사상,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페미니스트 관점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적 가치와 신념 및 인간관계 속에서 자살을 시도한 젊은 여성들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페미니스트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2008년 연구 책임자의 기관에서 연구대상자보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일개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된 자살 시도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함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면담은 녹음될 것이며 면담이나 연구 도중에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로 하였다.

자료는 개인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되었는데, 모든 면담은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일개 정신보건센터 면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질문은 개방형을 이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서 자살 시도와 관련된 삶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떠세요?" "자살을 시도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어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과 같은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 1인당 면담 횟수는 최소 5회에서 최고 10회이었고, 각 회당 면담 시간은 1시간이어서, 총 25시간의 면담 자료를 확보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한 후, 참여자가 한 말을 모두 그대로 필사함으로써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3. 연구참여자

총 4명의 자살 시도 여성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4.8세로서 20대 1명, 30대 2명, 그리고 40대 초반이 1명이었다. 대부분이(75%) 종교가 없는 고등학교 졸업의 기혼자이었다. 한 명만 무남독녀이고 나머지는 3~6명의 형제가 있었다. 경제 상태는 모두 "하"이었고, 비정규직이 2명이고 회사원이 1명이었다. 기혼자 3명 중에 2명은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1명은 남편이 시설에 입원 중이었다. 현재 동거 가족으로는 자녀와 거주하는 자가 2명, 아버지와 거주하는 자가 1명이었고 나머지 1명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살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참여자 모두 자살과 관련된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 중에서 오빠나 어머니가 실제로 자살하였고, 자살을 시도한 가족원도 여럿 있었다. 참여자 본인도 자살 충동을 갖거나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 시절에는 "수학여행을 못가서" 혹은 부모와 싸우고 나서, 결혼한 이후에는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횡포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 참여자 중 1명은 알코올 중독, 다른 1명은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머지 2명은 질병과 치료 경력이 없었다. 자살을 시도한 수단으로는 손목 자해나 방화 등이었다.

4. 자료분석

필사된 자료는 페미니스트 관점을 적용하여 Colaizzi (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가 표현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필사본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그 다음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절이나 문장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다시 연구자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보다 추상적인 형태의 진술들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 이들을 비교분석하면서 비슷한 것들을 모아 주제와 주제 모음으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원 자료로 돌아가 주제와 주제 모음들의 의미를 다시 탐구하면서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 자살 시도와 관련된 삶의 경험의 구조를 도출하였다(Figure 1). 마지막 과정인 참여자 확인 과정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확인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상처를 입을 수 있으리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경험의 구조가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전문가 동료들의 피드백과 함께 원 자료와의 지속적인 대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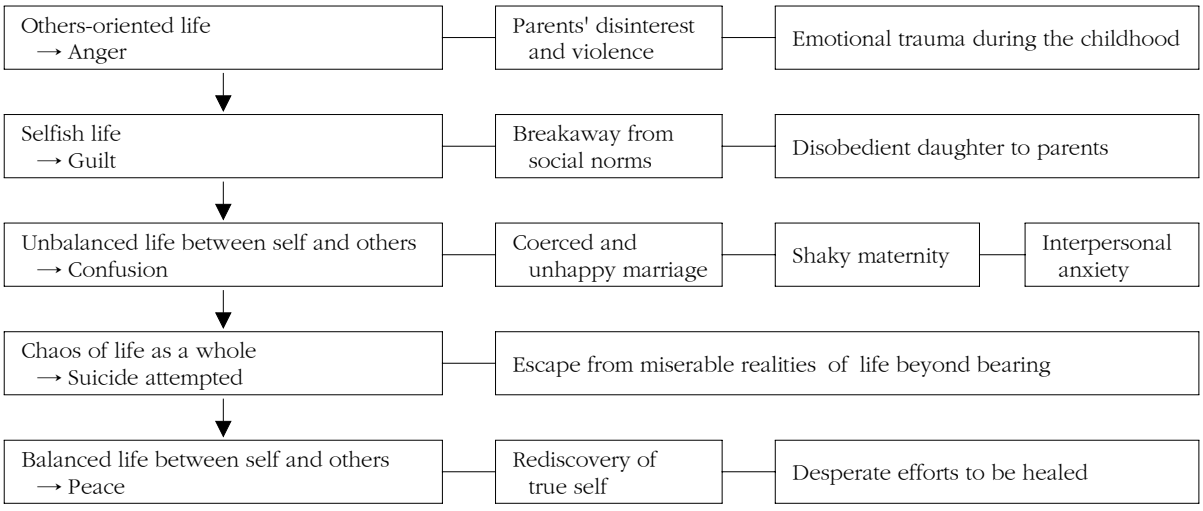

Figure 1. Structure of life experiences of young Korean women with attempted suicide.

5. 연구결과의 질 확보

연구결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Sandelowski (1986)가 제시한 신뢰성, 감사가능성, 적합성, 그리고 확인가능성의 네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가 자신의 자살 시도와 관련된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면담 장소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네 명에게 수행한 총 25시간의 면담으로 풍부한 세팅과 사건 등을 표본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타당성이 높다고 본다(Miles & Huberman, 1994).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고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를 필사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대표성을 검정하고, 자료로부터 분석한 범주와 예의 대표성을 검사하였으며, 결과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전형적인 요소뿐 아니라 비전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자료로부터 추출된 결과를 반박하려는 시도를 통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심포지엄을 통하여 자살 관련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은 것도 신뢰성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감사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료수집방법과 자료수집자 등 연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Coalizzi (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따름으로써 확립되었다고 본다. 적합성을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살 관련 특성 등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다른 비슷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확인가능성은 연구결과의 중립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감사가능성, 그리고 적합성을 확립함으로써 중립적인 결과를 얻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연구결과

자살을 시도한 네 명의 젊은 여성들의 삶의 경험에 관한 총 25시간의 면담 자료를 페미니스트 현상학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 모음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주제 모음은 자살을 시도한 젊은 여성들의 총체적인 경험 구조를 나타내며, 화살표는 이러한 경험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 1 주제 모음은 "타자 중심적 삶"으로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주된 감정은 분노이었다. 이에 관한 주제는 "부모의 무관심과 폭력"과 "유년 시절의 심리적 상처"이었다. 제2 주제 모음은 "이기적인 삶"으로서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된 감정은 죄책감이었다. 여기에는 "사회적 규범의 이탈"과 "불효를 저지른 딸"의 두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제 3 주제 모음은 "타자와 자아의 부조화된 삶"으로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감정은 "혼란"이었다. 주제로는 "반강제적인 결혼과 불행한 부부생활," "위태로워진 모성," 그리고 "대인관계 불안"이 포함되어 있다. "삶의 총체적 혼란: 자살 시도"라는 주제 모음은 자살 시도의 실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살 시도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유년기 시절의 분노와 청소년기 시절의 죄책감과 함께 오

는 총체적 혼란으로서, 여기에는 "견딜 수 없는 삶의 현실로부터의 도피"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타자와 자아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주제 모음에서는 평화가 주된 감정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서는 나약한 인간적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점차 수용해갈 수 있는 노력과 용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는 "진정한 자아의 재발견"과 "치유를 위한 안간힘"이 주제로 포함되었다.

제 1 주제모음: 타자 중심적 삶-분노

이 주제 모음은 유년 시절 참여자들이 겪었던 부모-중심의 억압적인 삶과 이로 인한 심리적 상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살 시도를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무관심과 폭력이라는 경험들과 중요하게 연결지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참여자들 모두 심한 억울함과 분노 감정을 품고 있었다.

주제 1: 부모의 무관심과 폭력: 모든 참여자들은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폭력 등으로 인하여 매우 공포스러운 시절을 경험하였다. 대부분이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가정은 어린이로서 보호받는 양육의 공간이 아니라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공포의 공간이었다.

> 아버지 기침 소리만 들어도 가슴 두근거리고... 가족이 다들 덜덜 떨고 있었던 그 기억... 아버지가 장독을 다 부셔가지고 온 집안에 그 까만 간장이 다 온 동네에 흘렸던 그 기억, 계속 이어지는 아버지의 그 술 드시고 주사하시고, 벌써 시간이 저녁이 지나서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저는 우리 가족들은 다 긴장해요, 아버지가 귀가하실 때까지, 그러다가 벌써 술 막 취한 소리가 저기 집 밖에서부터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때부터 도망가고 뒤집어엎을 것 치우고 저는 거의 도망가고. (참여자 3)

주제 2: 유년 시절의 심리적 상처: 모든 참여자들은 부모의 무관심과 무서운 폭력에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였고 이는 후에 커다란 심리적 상처로 남게 되었다. 특히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 속에서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로 남아 있었다. 이렇듯 "오빠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맨 날 밀리는" 딸이 되다보니 참여자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부모의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이었다. '착하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딸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고정관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기대에 고분고분 잘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 엄마 아버지들이 우리 둘째 딸 만큼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는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러고 나면은 솔직히 힘들고요... [아버지가 횡포를 부릴 때에는] 조마조마한데도 그냥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뭐 안 본다던가 나가버리면 되는데 그런 걸 전 못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학교 갔다가 언니나 남동생은 친구들하고 놀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놀러 가면 안 된다는 거, 집에 와서 부모님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언니하고 남동생 찾으러 다니는 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남동생 찾으러 오락실 많이 다니고, 언니 학교 끝날 때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와야 되고... (참여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동시에 이러한 부모-중심적인 순응적인 삶 속에서 자존감의 결여와 함께 자아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해나가지 못하여 결국 한 인간으로서의 본연적인 자아를 성장시킬 수 없었다. 이렇듯 부모의 관심과 사랑의 부족, 그리고 딸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참여자들은 결국 분노하게 되었으며, 이는 치유될 수 없는 유년시절의 심리적 상처로 마음 속 깊이 남게 되었다.

제 2 주제모음: 이기적인 삶-죄책감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부모-중심적인 순응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했던 경험을 나타낸다.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을 위한 독립적인 삶을 찾아 가출하거나 출가하였다. 하지만 결국 사회적 규범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심한 죄책감과 함께 가족 내에서도 불효를 저지른 딸로 전락한 자신을 돌아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제 3: 사회적 규범의 이탈: 모든 참여자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 위주의 순응적인 삶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려고 가출이나 출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적절한 보호 없이 사회로 진출하게 된 10대 여성 참여자들은 다양한 유혹 속에서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우선 이들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갈망하였고, 이러한 사랑의 욕구는 남성들과의 친밀관계로 이어지고 이에 더 나아가 동거생활로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심한 음주와 흡연도 일삼았다.

> 그 때 당시에 굉장히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관계를 맺었어요... 진짜 성관계를 맺은 게 딱 4번이 되요, 5번이 되요. 5번이 되는데 다 좋아서 한 게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걸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 처음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때 술이 너무 취해서. 딱 그 당시에는 결혼이라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좋아서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참여자 2)

이렇듯 섣부르게 시작한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결국은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 삶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기혐오, 자존감 저하 및 자책감에 빠져들었고, 혼전 임신과 유산 등의 아픈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죄책감은 증폭되었다. 일부에서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 제가 싫어서 유산을 했어요. 제가 애기를 지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많이 짓나 그 죄책감이 한 4년 정도 갔었거든요. 걔를 낳으면 제 인생이 끝날 꺼라는... (참여자 1)

[성관계를 한 후] 제가 그 다음날 얼마나 울었겠어요. 술에 깨고 나서 아빠, 고모, 고모부 얼굴 보는 것조차 미안해서, 왜냐하면 나 되게 착하게 자랐거든요 그랬어요 정말.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되게 순진한 애였는데, 한 순간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그 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싫어진 거예요. 아 그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싫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했던 거 같애요. 정말 살아 뭐하냐 나 같은 게... 그리고 이후에 제가 되게 '걸레' 같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 2)

주제 4: 불효를 저지른 딸: 모든 참여자들은 사회적 규범을 이탈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착한 딸이 되고자 했던 유년시절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는 가족 내에서도 결국은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효막심한 딸이되었다는 성찰과 함께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특히 자신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했던 부모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부모만도 못한 부끄러운 자식이되었다는 생각으로 무척 괴로워하였다. 특히 혼전 임신이나 유산 등의 사건들을 통해서 착하고 순했던 자식으로 여겨주었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을 더욱 책망하게 되었다.

> 우연찮게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임신이 돼서 그냥 시골집으로 엄마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공부를 하겠다고 나간 애가 연락 두절되고 집에도 안 오니까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연락 연락해서, 그래서 한 번 뒤집어 졌었고 그래서 제가 그 죄책감에 집에를 못 갔었어요. (참여자 1)

제 3 주제모음: 자아와 타자 중심적 삶의 부조화-혼란

이 주제 모음은 성인이 된 후의 결혼과 부부생활, 자녀양육,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서의 총체적인 삶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면서 급기야 자살을 시도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삶을 보여준다.

주제 5: 반강제적인 결혼과 불행한 부부 생활: 모든 기혼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결혼이 반강제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부당함은 동거와 혼전 임신 등 사회적 규범을 어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여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고 여기었다. 예를 들면 한 참여자는 배우자의 폭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와 혼전 임신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 그 때는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었어요... 현실을 많이 알았으면 까짓 거 남자랑 동거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까지 안 갔어도 되는데 내가 왜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동거를 한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혼식 날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때도 폭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참여자 1)

다른 참여자도 속임에 빠져 말기 간부전 환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으며, 남편의 질병에 대해서도 결혼 1년 후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 때 나이가 제가 스물 여덟 그랬는데, 벌서 이 남자가 완전히 머리도 여기 막 빠져가지고 굽실굽실하니 얼굴도 지글지글해 가지고 진짜 그 때 저는 그 남자를 딱 보는 순간 식물로 치면 진짜 죽은 식물 같다는 죽어가는 식물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니까요. 아 영 아니더라구요...저랑 동갑, 스물 여덟 동갑이었어요... 이제 자꾸 싫어서 3번 정도를 내가 아무튼 거부를 했는데, 시아빠가 ... 그러면서 근처에다 벌써 아파트를 하나 이제 뭐 집값 되지도 않는다는 고거를 귓바람을 [넣었어요]. (참여자 4)

이렇듯 반강제적으로 혹은 속임을 당하여 맺어진 결혼은 불안정한 부부생활로 이어졌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 자살, 혹은 사망으로 인하여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결혼 생활은 유년시절에서처럼 또다시 "지옥" 같은 불행한 생활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모든 참여자들은 "참고 살아야 하는 여자의 일생" 혹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일부에서는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갖기도 하였다. 하지만 몇 년씩 지속되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은 맘대로 해도 되고, 나는 이렇게 구속되어야 하는" 불평등한 부부관계와 남녀차별적인 부당한 현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면서 남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괴로워하였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남편의 생활력 부재로 심각한 경제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남편의 자살 혹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극심한 궁핍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게 되었다.

> 제가 애 들쳐 업고 [알코올 중독] 남편 챙겨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애들 아빠가 잘 때도 머리맡에다, 칼을... 진짜 싸울 때 [나한테] 칼 갖다가 들이대요. 대다가 제가 죽이라고 들이 밀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못 찔러요. 그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머리 터져가지고 제가 맞아 가지고 머리 터져서 꿰맨, 그런 게 진짜 지옥 같았어요.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지옥 같았어요. (참여자 1)

주제 6: 위태로워진 모성: 이 주제는 모성 역할에 대한 참여자들의 혼란스러운 갈등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결혼한 참여자 3명 모두 사회적, 경제적 지지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자식은 "내가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자 희망이라고 여기면서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전력투구하였다. 하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폭력 그리고 수년에 걸친 경제적 궁핍과 주위의 무관심 속에서 이들은 서서히 모성을 지탱할 자력을 잃어갔다. 희망이었던 자식은 "힘겨울 때에는 자식도 버리고 싶은 욕망이 솟구치는" 막중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 그 때 처음 그 때는 아이랑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젖먹이 아이도 언니한테 맡겨놓고 제가 가서 찌라시 [뿌리고] ... 그러고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깐 더 힘들더라구요.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구요. 그게. 나 나름대로는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있었고 그래서 막 내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깐 지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팽개칠 수는 없고. (참여자 3)

참여자들은 자녀가 커감에 따라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의 한계를 더욱 크게 느꼈는데, 특히 아들인 경우 이들의 반항이 커지면서 남편의 도움 없이 홀로 부모 역할을 감당해내기 어려웠다. 특히 가족이나 사회적인 지원 없이 늘 외롭고 고립된 채 홀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상태가 몇 년씩 지속되면서 결국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죄책감과 함께 아이를 포기하려고 아동보호소에 위탁하기도 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아이를 살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 집에 와서 아이한테 아이 목도 조르고 그랬었어요... 늘 아이랑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그러니깐 어떤 그런 자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참여자 3)

주제 7: 대인관계 불안: 이 주제는 참여자들이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혼란을 나타낸다. 참여자들은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과 인정을 타인들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대인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각별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저하된 자존감과 분노,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어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등 다양하고 복잡해진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타인과 진정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동시에 자기 노출에 대한 심한 불안 속에서 신음하면서 사회적 규범을 이탈했던 자신의 과거가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같은 불안"에 늘 휩싸였다.

> 저도 모르게 눈치를 많이 살펴요. 모든 걸... 늘 끊임없이 분위기 살피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인데도 혹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잘못되면 그렇지 않을까? 늘 이렇게 점점, 싫은데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깐 뭐 솔직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조차도 이렇게 내가 혼란스러운데, 제가 편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고, 우선은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가장 뭐, 그래도 나는 요런 거만큼은 내가 어느 정도는 선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깐, 제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무슨 기대를 하겠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두려움...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참여자 3)

이렇듯 동료들로부터 비난받고 내쳐질까 하는 심한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동료들에 대한 불만, "결국 이 사람들은 나를 이 정도로 봤구나 이런 거에 대한 실망"과 피해 의식에도 사로잡혀 있었다.

> 왜 내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다는 그런 좀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커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게 잘 몰랐는데 커 가면서 어디 사회에 소속이나 학교에 소속이나 그런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 속해도 될까, 누가 나한테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건 지금도 그래요. (참여자 2)

따라서 참여자들은 "제가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관이 틀린 것 같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요"라는 한 참여자의 진술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확신을 거의 가질 수가 없는 혼돈 상태에 빠져 들게 되었다.

제 4 주제모음: 삶의 총체적인 혼돈-자살 시도

이 주제 모음은 삶에 대한 총체적인 혼돈 상태에 빠져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8: 견딜 수 없는 삶의 현실로부터의 도피: 모든 참여자들은 유년시절의 심리적 상처로 인한 분노와 사춘기 이후 사회적 규범의 이탈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남편의 학대와 자녀 양육의 어려움, 그리고 대인관계의 불안 등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모르는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들어, 결국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 상태에 접어들었다. 알코올 중독인 "남편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고 홀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자신은 "엄마 묶까지 챙겨야 하는" 커다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렸고, 따라서 자신들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지옥" 그 자체이었다. 자신은 마치 "온 몸이 밧줄로 묶여"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동시에 "순하고 착한 사람이고 싶은데 과거가 더럽다"는 생각과 "나 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지독한 자기혐오감에 시달리면서 삶의 무의미함에 젖어들었다. 이러한 정신적인 황폐 이외에도 심한 불면증과 악몽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함께 신체적으로도 소진되었다.

> 그냥 싫으니까, 무의미하니까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과연 커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희망이 없으니까요. (참여자 2)
>
> 막 아 내 자신이 막 내가 너무 싫은, 싫다는 느낌이 그냥 막 오니깐... (참여자 3)

결국 참여자들은 감옥 속에 갇힌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자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하나의 희망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 한편, 이들에게 있어서 자살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어려서 어머니나 오빠 등 가족원의 자살을 접했으며 자신들도 그동안 자살을 늘 생각하거나 시도해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매우 친숙한 해결책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 지금 생각하면 좀. 술병을 깨 가지고 제 몸에 자해를 했어요... 그냥 손목을 그어버려..., 그 이후로 이렇게

조금씩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창문이 큰 빌딩을 보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뛰어내리고 싶어요... 아니면 수면제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참여자 4)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남편이나 자녀 등 타인에 대한 분노와 복수로 살인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살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아예 제가 포기를 해 버렸어요. 차라리 저 사람 [남편]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죽이고 싶은 충동도 많이 느꼈었고. (참여자 1)

제가 두세 번 기억을 해요. 아이의 목을 졸라서 죽이려 했었어요... 자고 있던 애를 죽이고 싶더라구요, 잘 자고 있는 애를. (참여자 3)

제 5 주제모음: 자아와 타자 중심의 삶의 조화-평화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이 자살을 시도한 이후 심각한 와해 상태에서 서서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성찰을 통하여 자아과 타자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얻으며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주제 9: 진정한 자아의 재발견: 모든 참여자들은 한번 혹은 여러 번의 자살 시도 이후 일기 쓰기 등의 반성을 통하여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듯 서서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나약한 인간적인 존재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냥 울고 있는 7살 전쯤의 어린 애"처럼 상처받고 버려진 자신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그동안 누구로부터도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초라했던 자신, 그래서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었고" 오히려 "누가 나를 때려주었으면 했던 자신," 그래서 "나만 없어지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살을 시도했던 초라하고 처절했던 자신의 참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렇듯 은폐되어 가려져 왔던 진정한 자아의 재발견은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 주었다. 즉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 만들어 놓았다는 자각을 얻게 되었다. "제가 그 순간에 상처를 받을 때의 그런 선택들이 있잖아요 다 제가 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였듯이, 참여자들은 비참한 자신의 모습과 현실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자각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각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서서히 내면적인 힘을 키울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재발견을 통하여 "결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아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고, 동시에 그동안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삶 자체에 미련이 생기게"되었다. "이 나이에 죽으면 억울하니까 할 일도 많은데 죽는 게 좋으냐고 악착같이 살아야지!"라고 하며 삶에 대한 애착을 다시 품게 되었다.

주제 10: 치유를 위한 안간힘: 자기 인식과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진정한 자아를 보기 시작한 이후, 모든 참여자들은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나온 자신의 과거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수용하고 위로하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우선 자신을 얽매어 왔던 관습이나 사회적 규범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였다. 비록 "주어진 삶에 감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책임을 지는 삶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벗어나면 안 된다 라는 거, 틀 속에서 갇혀 지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구나, 뭐 부모들에게 걱정 끼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을 봤을 때 문제 있는 학생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뭐 돌이켜보니 나 하나 자유롭게 살았다 이런 것조차도 없더라구요. 결론은 책임감 없이 살았는데, 나 하고 싶은대로 살았는데,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닌 거죠. 제가 나름대로 결과를 떠나서 내가 지내오면서 행복했던 적 정말 내가 자유로웠던 적도 없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3)

나 중심적인 생활, 나를 릴렉스하게 강박관념으로 대하지 말고 좀 릴렉스, 편안하고 여유롭게 가질 때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 같고... (참여자 4)

참여자들은 타자가 아닌 진정한 자아 즉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모색해 나갔다. 즉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앞으로의 삶은 되도록 "재미있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졌다. 직장생활을 착실하게 한다든가 그동안의 음주와 흡연 등 나쁜 습관을 버리고자 노력하였다.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 넣기 위한 건강한 취미생활과 휴가와 여행 등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교인인 경우는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였다. 일부에서는 대학도 가고 일본 유학도 가고 싶다는 등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과 반성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기혼 참여자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재정리하려고 구상하였다.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낮추면서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편과 사별한 경우에는 못 다 이룬 '현모양처(賢母良妻)'의 꿈을 싹 틔우려 하였다. 하지만 결혼하면 올 수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또다시 갈등하고 있었다. 자식을 생각하면 재혼이 어려울 것 같고 재혼하려면 자식을 떼어놓아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었다. 모성 역할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 또한 버리기가 매우 어려웠다.

> 다시 한번 가정을 꾸려서 다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는 못 해봤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 봤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여자는 남자 그늘 밑에 사는 게 최고 행복일 꺼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그거는 나중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저 혼자 제 인생 좀 한 번 살고 싶다구요. (참여자 1)

> 어찌 생각하면 아이가 걸기적거려요. 솔직히 말하면. 왜? 나도 내 행복을 누리고 싶지요. 7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 왔는데, 이제 와서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따라와 주면 모르겠는데, 점차 반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줄 수 있고 나와 같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주는 남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반려자가 필요한데,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 (참여자 4)

이렇듯 모든 참여자들은 상처받아온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치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제도 내에서 이들이 극복해야 할 수많은 숙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살을 시도한 젊은 여성들의 경험을 심리적,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공감을 얻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적인 가치체계와 사회구조 속에서 자살 시도 여성들이 유년시절부터 시작하여 자살을 시도하고 회복하기까지의 과정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자살 시도 여성들을 위한 자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자살 시도 여성들은 유년시절 부모의 무관심과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효를 저지른 딸로서의 죄책감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가족 역동과 양육 방식 등이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와 유사하다(Im & Jung, 2002; Kim, 2002; Kim & Choi, 2008). 본 연구결과 자살 시도 여성들은 사회적인 규범에서 이탈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망을 잃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흡연이나 알코올 혹은 공격적 행위 등이 자살 행동과 관련된다는 연구(Lee & Lee, 2002)와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만을 밝혀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자살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풍부한 기술을 통하여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자살시도 여성들은 대인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살 생각자에서 대응 행위의 수가 적었다는 연구(Im & Jung, 2002)와 유사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자살 시도 여성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경험을 여성의 생애사적 전체 맥락과 그들이 처한 심리사회적, 구조적 상황 속에서 심도 있게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양적 연구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기혼여성들은 남편과의 불화와 모성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별로 나타난 한국 여성들의 특징에서 제시한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즉 현모양처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중년여성은 남성보다 가정불화와 양육의 어려움으로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Kim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자살 시도 여성들은 궁극적으로 자살 시도라는 사건에서 벗어나 타자와 자아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평화를 찾음과 동시에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함께 소중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을 생각해 본 노인들이 현실 세계를 직시하며 새로운 희망과 함께 자아를 재구성해나간다는 현상학적 연구(Jo & Kim, 2008a)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자살 시도 여성들은 사회적 규범을 어긴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자 하였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규범 중의 하나인 "현모양처"라는 이상향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억압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자각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교육하고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페미니스트 연구의 목적인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중심적인 제도와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여성으로서의 힘을 북돋울 수 있는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접근 등이 개별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 결과, 젊은 여성들의 자살 시도는 일부 몇 가지 사회적, 심리적, 혹은 정신적 사건이나 문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무관심과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유년기 시절의 심리적 상처에서부터 가출에 따른 혼전 임신과 동거, 불행한 결혼 생활과 모성의 위기, 대인관계의 불안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전 생애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다학제적이고 통합적인 방안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생애사적 시기에 따른 위기 중재 뿐 아니라 각 문제 영역별로 여성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자살 예방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살 시도 여성들은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등으로 어릴 적 심리적 상처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폭력 가정을 예방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 내 부부 평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폭력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가장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경제적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자녀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모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여 자살이나 폭력 등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살 시도 여성들은 모두 가출이나 출가한 후 동거와 혼전 임신 등 사회적 규범을 이탈하게 되어 결국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는 자살 시도 여성들의 삶에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족 중재와 함께 가출 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젊은 자살 시도 여성들은 일과 양육의 문제로 모성을 지키기 어려워하였다. 따라서 가족 중재 이외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과 경제적인 지원 등의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으로 모성 역할을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살 시도 여성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 중재와 함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등을 통하여 자기주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기주도적인 여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힘 북돋우기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자살시도 여성들은 유년시절부터 겪어온 정서적 상처로 분노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결국 삶에 대한 심각한 혼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을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중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자살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중재에서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와 공감이 중요한 점임을 고려할 때(Maris et al., 2000), 이들의 시각과 관점을 존중하고 반영해주는 중재를 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접근을 이용하여 자살 시도 여성들의 시각과 언어로 이들의 경험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불평등적인 신념과 가치체계, 즉 남아선호 사상이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속에서 자살 시도 여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살시도 여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회구조와 가치체계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자살시도 여성들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젊은 여성들에게 적합한 자살 관련 설문지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는 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성 맞춤형 자살 예방과 치료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젊은 여성뿐 아니라 청소년, 남성, 노인 등 자살 빈도가 높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심층적이고 서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보다 통합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343-352.

Calson, G. A., & Cantwell, D. P. (1982). Suicide behavior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886-891.

Campbell, J., & Bunting, S. (1991). Voices and paradigms: Perspectives on critical and feminist theory in nurs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3*(3), 1-15.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pp. 48-71). NY: Oxford University Press.

Im, S. B., & Jung, C. S. (2002). A comparison of stressors and coping behavior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suicidal ideation vs those who do no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2), 254-264.

Jo, K. H., & Kim, Y. K. (2008a).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storation experience for suicide ideation of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2), 258-269.

Jo, K. H., & Kim, Y. K. (2008b).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ultidimensional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Korean elders by utilizing a community network.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372-382.

Kim, B. Y., & Lee, C. S. (2009).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5), 651-661.

Kim, H. S. (2002).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family dynamic environment and suicidal attempt among Korean adolescents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2), 231-242.

Kim, S. H., & Choi, Y. H. (2008).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tresses on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2), 200-208.

Kim, Y. J. (2009). Comparison of health habits,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hinking by gender between elders living alone and those living with ot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16*(3), 333-344.

Kim, Y., Kim, I., Ju, Y., & Lee, J. (2009). A study on the status of female suicide and policy agend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public of Korea.

Lee, E. (2007).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ne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4), 576-585.

Lee, E. J., & Lee, E. S. (2002). Correlation between alineation and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delinquenc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9*(1), 56-65.

Maris, R. W., Berman, A. L., & Silverman, M. M. (2000). *Textbook of suicidology*.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McAndrew, F. T., & Garrison, A. J. (2007). Beliefs about gender differences in methods and causes of 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 271-279.

Michel, K., Maltsbergher, J. T., Jobes, D. A., Leenaars, A. A., Orbach, I., Stadler, K., et al. (2002). Discovering the truth in attempte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56*(3), 424-437.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Park, E. (2008).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465-473.

Park, H. S. (2007).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violent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835-843.

Park, H. S. (2009). Effects of core competency support program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6), 851-859.

Reinharz, S. (1992). *Feminist methods in social research.*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27-37.

Statics Korea (2009, September 14). *Cause of death statistics in 2008.* Retrieved July 20, 2010, from http://kostat.go.kr/eboard_faq/BoardAction.do?method=view&board_id=106&seq=266&num=266&parent_num=0&page=1&sdate=&edate=&search_mode=s_title&keyword=death&catgrp=eng2009&catid1=g01&catid2=g01b&catid3=&catid4=

Yi, M., & Yih, B. S. (2004). Feminism an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3), 565-575.